대심방 점심 피자

(눅10:38-42)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심방 점심 피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대심방 때에 목사님과 심방 대원들에게 그 심방 받은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 일과 연관되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였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 드신 권사님도 계셨고 또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는 여자 집사님도 계셨고 또 그 외에 다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가장 젊은 집사님, 아이들이 어린 그런 젊은 집사님이 심방 얘기를 하는 중에, 이민으로 외국에서 계시던 분인데 한국으로 오셔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대심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 때를 맞춰서 피자를 해 놨다가 피자로 목사님과 심방 대원들에게 대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뭐… 황당한 웃음이 다 나왔지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시는 집사님들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에요.

대심방 때 목사님과 심방 대원들에게 피자를 주문해서 대접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되는데, 얘기가 진전이 되면서 그 황당했던 상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 참 어느 것이 옳은 게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그런 겁니다.
이 젊은 집사님이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대청소하고 뭐 맛있는 음식들을 정말 많은 여러 가지를 만드시느라고 준비한 거는 아니지마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이 오시면, 그 동안 먼발치에서만 바라보던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 대화중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를, 집안의 일들 또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과 부딪치는 문제들, 자녀 키우는 문제, 또 남편과의 문제 이런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다~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적어두고 하면서, '아!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이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다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지!'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심방을 가면,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그 심방을 받으시는 집 주인들이, 그저 심지어는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주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이 예배가 끝나면 딱 맞춰서 식사를 하게 하시려고, 가서 국의 불을 조절하고 또 뭐 렌지에 뭘 넣어 놓고는 또 그 시간을 맞추어 놓고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앉으면서 뭔 얘기인지 듣지도 않았으면서 앉자마자 '아멘~'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정신이 다 음식 만드는 쪽에 가 있으면서, 목사님과 대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것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
과연 뭐가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이 이런 거예요.
대할 때마다 쉽게 결론을 내지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주님은 얌체 같은 마리아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셔도 보통 들어주신 게 아니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생활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솔선하면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 줘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보조하고 도우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일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대통령도 그렇지요.
뭐 대통령이 좋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도 대통령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하려면 뭐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모~든 면에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고맙지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끝에 앉아 가지고, 예수님 빤히 처다 보면서 생글생글 웃어 가면서 그냥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재미있어서 예수님과 말씀만 나누고 있고, 언니는 지금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뭐 디저트 준비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그 쪽은 아예 신경을 끄고 있으니까 이런 얌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우리 인간사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대심방이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었다면, 모든 사회생활 현장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줘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한 대상으로 끼어 계신다고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리아를 향한 원망어린 불평에 대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마르다는 빼앗겼다 이겁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고 있고, 마르다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뭘 빼앗겼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내 인격이 부딪쳐서 예수님의 매력에,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따스함에 안기는 그런 기회를 마르다는 빼앗겼다는 얘기이고,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마르다가 왜 빼앗겼습니까?
밥해야 되고 국 해야 되고 반찬 해야 되고 디저트 만들어야 되고, 소중한 예수님이 오셨으니

까 그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예수님을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그 분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 분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는 마르다 같이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해서 하나 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이 본문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식사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밥은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 됐느냐.
인간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고 훌륭해 보이지마는,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에서는 절대로 식사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러면 밥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채로 예수님께서 드실 밥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과 동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께 밥을 대접하고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께 대접할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 자신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된 뒤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먹을 것 좀 없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실 겁니다.
이때 먹을 거 준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참 잘못된 번역이 하나 있어요.
42절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번역이 아주 잘못 됐어요.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냥 41절에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42절을 어떻게 헬라어에 나와 있냐 하면요, '필요한 것은 단 한가지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이 말은, 개역성경과 개정한글에만 있는데, 왜 이 말을 집어넣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사본에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작 필요한 것은 한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 필요한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국 하고 반찬하고 뭐 디저트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지마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는 꼭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하지 말고, 국도 하지 말고, 반찬도 하지 말고 디저트도 준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예수님과 하나만 되라 이겁니다.
그 하나만 되면 밥도 국도 반찬도 디저트도 다 나머지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같이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신혼부부가 휴일을 맞이했어요.
토요일 날 이제 남편이 회사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늦게까지 둘이서 좋아 죽고 하다가, 늦게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10시쯤 일어났어요.
10시쯤 일어났는데도 둘 다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또 일어나서 남편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잠자고 있는 눈으로 그 신부를 그저 쓰다듬고 뽀뽀하고 그러다가 눈이 깼는데 남편이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저 또 일어 나가지고 남편 손 만지고 남편 발 만지고 그러고 있다가, 꼬로록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랑신부가 동시에 '우리 뭐 좀 먹을까, 우리 뭐 먹을까' 둘이 같이 먹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죽으나 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섬김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과 헌신과 이게 하녀가 주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애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하나 된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는 한 가지 일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님과 같이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왜 주님을 빼앗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리고 그 앞에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분주하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 마음이 사방으로 흐트러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다.
그러면 빼앗기는 겁니다.
주님을 빼앗기고, 주님을 빼앗기면 연속적으로 천국을 빼앗기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도 만난 자에요.
마르다가 강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사 일이 여러 가지이고, 가정 일이 여러 가지이고,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마음을 그 쪽에 빼앗기면서 우리가 진짜 빼앗기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빼앗겨 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뭘 분명히 하느냐!
염려 할 것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오직 한가지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 전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전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드라마페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드라마페인.
드라마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드라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드라마에, 드라마 1편2편3편 쭉~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울면 나도 울고, 주인공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주인공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이, 드라마 속의 형편인데도 나의 현실로 내 마음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쑥 빠져 나와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현실로 느낀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드라마페인이라 그래요.
진짜 현실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드라마 속에 빠져 가지고 그걸 현실로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기는 이유, 하나님을 빼앗기고 천국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이유, 강탈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구페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구페인.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은, 제2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제2현실이고, 주님과 하나님이 제1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이 제2현실인 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제1현실인 하나님을 강탈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주님을 강탈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현실 속에서.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디저트 준비하는 마르다의 이 행동처럼, 다~ 필요한 일들이라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필요한 일들이 다 제2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천국을 빼앗겨 버리고 천국을 강탈당하고 말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오~직 한가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42절 말씀 '필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뿐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성경 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많은 필요한 일들, 그 일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서 하나로 연합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필요한 이 세상의 일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이 와중에 너무너무 좋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하나 된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제쳐놓고 '주님 기쁘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녀다운 하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아내다운 하녀, 하나님의 아들다운 종을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심방 때, 목사님에게 피자를 대접하는 이 젊은 집사님의 속내, 목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 속내, 이것이 신앙으로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이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많은 일에 분주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는 주님을 강탈당하고,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를 강탈당하고 삽니다.

많은 일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러기 위해 이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순간에, 십자가 바라보며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